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 고 있다. 더구나 첫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함께 '위성 비례정당' 출 연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못하 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이 지배하 는 미증유의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 판을 흔들 변수로는 경제 침 체, 여야 공천 평가, 코로나 사태, 비례대 표용 위성정당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중도·무당층 표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 핵 심이다. 이런 정권 심판론은 크게 세 가 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나

첫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어느 정 도 성과를 냈는지 여부다. 현 정부의 양 대 핵심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 시 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케어 등이 제대로 작동되어 저성장과 소 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 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얼 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그런데 현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민심 의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시점에 실시한 여 론조사(2019년 11월 12~14일)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 27%, 부정 57% 였다. 집권 초기에는 반대로 긍정 54%, 부정 17%였다. 대북 정책도 긍정 (38%)보다 부정(49%)이 많았다. 제1 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에 긍정(83%)이 부정(7%)을 압도했던 것 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

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 냐이다. 통상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정 철 학이 반영되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제시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 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 모 두의 대통령'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군림하고 통치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 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런 철학 적 기조 속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 리 사회는 진영의 논리에 갇히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치면서 한 번도 경험 하지 못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셋째,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 폐 청산을 통해 특권과 차별이 없는 정의 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 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검 찰 개혁은 사라지고 검찰 장악이 부각되 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 다. 누가 원칙을 지키고 누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행보를 했는지 평가받을 것

작년 12월 27일 여권은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 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만들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 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통과시켰 다.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허점 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은 '정치를 장난으로 만 드는 것' '쓰레기 가짜 정당'이라고 맹비 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얕 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이 있 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7일 친문 성향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기 로 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유례없 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 구성원의 다 양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 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제1당이 될 것인가 여부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과연 어느 정당이 꼼수와 반칙을 일삼고 있는지, 어느 정당이 상식과 원칙 을 지키는 지, 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 는지, 누가 미래로 나아가는지를 기준으 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우리는 지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 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사회, 경 제, 문화, 종교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까 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바이러스의 전파 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이 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며 조심스레 안정화 단계로 진 입하고 있다고 정부와 언론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지금이 서로가 더 조심하 고 바이러스 방제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 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고 대구의 한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대구시 는 낮이든 밤이든 마치 유령이 나올 정도 로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 고 있을 때, 우리 광주는 '달빛 동맹'이라 는 이름으로 대구에 손을 내밀었다. 모두 가 힘들지만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 을 내미는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좋았거나 나 빴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어려울 때 돕는 것, 고통받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고통 분 담의 모습은 우리 내면에 자리한 선을 자 극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희생에 고맙고, 밤낮으로 총력을 기울이 는 정부와 의료진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코로 나19와 같은 총체적 난국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방 역 체계가 세계 최고라고 외신 기자들과 외국 언론들은 말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마음 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솔직하고 투명하게'라고 표현하고 싶다.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는 코로나19는 세계의 모 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 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 에 사로잡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 '솔직하 고 투명하게' 방제 작업을 진행했고 협조 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전염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 석했고, 확진 후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동선을 조사하여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미리 차단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덧칠하고 숨겨 버렸 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는 식 으로 가면을 쓰게 되면 그 죄는 영원히 그 사람의 족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 신의 죄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고백한 다면 그 죄인의 영혼과 삶은 자유를 얻어 행복으로 초대될 것이다. 죄를 부정하고 덧칠한 가면은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서 워 숨고 피하기만 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 지역의 모든 성당에서는 미사와 모임이 중단되었다. 모든 신자들 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정 부와 의료진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방제 작업과 확산 방지 그리고 치료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 야 할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취 약 계층이다. 우리 지역의 취약 계층은 지하철역과 광주공원 그리고 광주천변 에서 쉴 곳을 찾는 노숙인들, 거동이 불 편한 독거노인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이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야 한다.

많은 신자들이 손수 만든 면 마스크를 취약 계층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 해지길 희망하며 가톨릭 광주사회복지 회에 문의를 해 온다. 어려운 시기에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 나 이데올로기가 작용해서도 안된다. 예 수는 언제나 말씀과 활동을 '솔직하고 투 명하게' 하셨다.

예수는 진실을 말하셨고, 진실을 감추 지 않으셨으며, 진실을 세상과 함께 공유 하면서 당신 자신을 이웃을 위해 온전히 바치셨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여 우리 사회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리는 코로 나19 사태에 모든 종교와 그 구성원인 신앙인들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살아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사회와의 통 합을 위해 사랑을 삶으로 나누는 것이 신 앙인의 도리다.

기 고



도나도 이곳저곳" 경쾌한 배경 음악과 귀 에 쏙 들어오는 가사. 그리고 악어와 악 어새가 등장하는 지역 광고를 본 적이 있 는가? 상생(相生)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악어와 악어새를 주인공으로 한 광주의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를 소개하 는 영상 광고다.

광주 상생카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제적 자원도 많지 않고, 입지나 접근 성도 유리하지 않은 광주시 입장에서 지 역 자본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선순환하게 해 지역 경 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드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9만 7000여 명, 가맹점 9만 3000여 개소, 발행액 14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지역 화폐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모두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 의 뜨거운 관심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 인참여 덕분이라 생각한다. 광주 상생카 드의 인기가 높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

지난해 3월 20일 탄생한 광주 상생카

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순수 카드형 지역 화폐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 고, 별도 가맹점 모집 절차가 없는 장점 때

등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 쌍방에게 인센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40~50 대(55%), 20~30대(26%), 60~70대 (16%)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부터 어르 신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업종 별로는 마트·슈퍼 등 유통업(23%), 음 식점(20%), 병원(18%), 교육비 (13%) 순으로 광주 상생카드가 지역 업 체 전반에 걸쳐 사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

광주시는 이러한 광주 상생카드의 성 공에 힘입어 올해에는 지난해 발행 실적 863억 원을 크게 상향하여 3000억 원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 상생카 드 운영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당초 개인에 한정됐 던 체크카드 발급 대상을 법인 단체까지 확대하고, 구매 가능 연령 기준이 달라 혼란을 주었던 체크·선불카드의 발급기 준을 만 14세 이상으로 통일했다. 기존 선불 카드 충전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 상생카드가 지역 경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동참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 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 역민들 모두가 지역 사랑의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기를 소망하며, 광주 상생카드 로고송을 흥얼거려 본다. "혜택 쌓고 매출

社說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장애학생 배려를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을 연기한 대학 들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갔다. 한데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어 장애 학생들이 많 은 불편을 겪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 한 학습권 침해인 셈이다. 장애인차별철 폐연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 장애 학생 73 명 가운데 시·청각 장애 학생 30명과 조 선대 장애학생 51명 가운데 시청각 장애 학생 15명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한 다. 호남대(10명 중 청각장애 3명), 동신 대 (10명 중 시·청각장애 3명) 학생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실제 A(조선대·시각장애)씨는 "교수 음성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상 이 자주 끊기는 데다, 혼자서는 강의의 끊긴 부분을 다시 찾아 듣기도 쉽지 않 다"고 했다.

B(조선대 대학원·시각장애)씨도 "시 각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더 라도 강의 외에 첨부된 도표나 그래프 자 료를 읽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지

원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문대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 C씨는 "온라인 강의가 자료 사진을 띄워 놓고 강 사의 목소리를 입혀 놓은 형식이라 입 모 양조차 볼 수 없다"면서 "강의 해설 자막 이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자막이 나 수어통역이 없어 청각장애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에서 제목과 소제목만 지켜 보는 실정이다.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익 숙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와 수업을 급작 스럽게 준비했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이 드 러났다면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 선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해 수어통역사 를 배치해 수업을 설명하게 하게나 수업 내용을 자막 처리하는 등 이들을 위한 학 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 요하다면 행정 당국에서도 지원을 서둘 러야 할 것이다.

탄력적 운영 돋보이는 고흥 노인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남의 모든 시·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바이러 스 감염에 취약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고흥군 만이 유일하게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 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하지 않느 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흥군의 조치를 이해할 만하다. 고흥군은 65세 이 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군민의 40%인 2만6 천여 명에 달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곳은 고흥이 전남에서 유일 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 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 른 노인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로 도 입한 제도다.

고흥군이 다른 시·군처럼 17개 노인 일 자리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하 면서도 노노(老老)케어와 가가호호 급식 배달 등 4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생 계'와 '건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노노케어는 노인 310명이 또래 노인들 2명씩을 맡아 한 달에 10차례 찾아가 안 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가가호호 급식 배 달도 노인들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1주 일에 2회 방문해 급식을 전달하는 사업이 다. 고흥에는 독거노인만 해도 8000여 명이나 있는데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 을 통해 사업 참여자는 일정 소득을 보장 받고 이웃 노인들의 건강도 살피는 효과 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무작정 중단하 기보다는 감염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 가 있다. 사업 참여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수시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 면 노인들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코 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

감정의 해방구

멈췄다. 모든 경기가. 코로나19 광풍으 로 스포츠 경기는 지금 '올 스톱' 상태다. 유럽에선 축구 리그가 모두 중단됐고 유 로2020도 연기됐다. 손흥민은 오랜 부상 에서 회복해 토트넘에 복귀했지만 뛰지 못하고, 이강인의 소속 팀 발렌시아는 선 수단의 35%가 확진 판정을 받아 뒤숭숭 하다. 구단들은 "수입도 건강만큼 중요하 다"며 시즌 강행 욕심을 드러내지만, 이 미 경기장은 폐쇄되고 관중은 떠났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메이저리 그에 진출해 시범경기

무실점 호투를 이어 가 던김광현은스프링캠프 가 닫히는 바람에 훈련

도 귀국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토론토로 이적한 류현진은 캐나다의 입국 봉쇄로 발이 묶였다. ML 개막은 6월로 예정돼 있지만 아예 통째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IOC가 7월 정상 개최를 천명한 도쿄올 림픽은 예선전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 다. 일본은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음으 로써 확진자를 줄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염자가 태연히 옆에서 식사하고 같이 걸 어 다닐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익만을 앞세워 올 림픽을 무리하게 치른다면, 대회 이후 겪 게 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인 요한 하위징아 는 "놀이하는 인간은 경기장에 갈 때 진 지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 는 "경기장은 응축된 감정을 마음껏 폭발 시키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법이 지배 하는 곳이다. 팬들은 경기장으로 달려가

본능적인천국을즐기다 다시 일상의 세계로 돌 아오곤 한다. 그곳은 정 신과 감정의 해방구다.

경기장 문이 닫히면 인간의 응축된 감정 은 갈 곳을 잃는다"고 했다.

야구·축구 등 모든 경기장의 문이 닫혔 다. 안방 스포츠 팬들도 손에서 리모컨을 놓은 지 오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말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사 랑하는 이들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 는 일일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격리를 통 해 쌓인 눅눅한 감정은 어디에서 풀어야 할까. 혼돈의 3월이 지나가면 다음은 잔인 한 4월이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则日朝

전 남 본 부 220-0642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 '광주 상생카드'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혜택쌓고 매출 올라 기쁨이 두 배, 너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에게는 카드 결 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카드 사용 시민들에게는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 문에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자치 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상생카드는 올해 2월 말 기준 총 9만 7000여 명이 가입해 광주 인구 6.7%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체크 카드 및 선불 카드를 포함 총 26만 5148장의 카드가 발 급되고 1404억 원이 발행됐다. 가맹점은 총 9만 2617개소다. 이중 카드 결제 수수 료 전액을 지원받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7만 3050개소로, 전체 가맹점 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자 캐 시백지원예산으로총 128억원을,가맹 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으 로 4억 600만 원을 지원했다.

타나고 있다.

충전 시에도 할인이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발행 목표 액 3000억 원 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 기 위해 추가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라 기쁨이 두 배, 너도나도 이곳저곳"